

독일 전기상용차 시장 성장 확대...10억 유로 규모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 투자 본격화

해당국가	독일	기관(기업)	독일 연방교통부(BMV)	동향분야	시장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독일 전기상용차 시장은 EU 배출 규제 강화와 자국 완성차 기업의 전기트럭 양산 확대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세로 진입

-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디젤 중심 화물 운송 체계의 전기차 전환이 본격화되는 흐름으로 확대
 - 시장 규모는 2026년 47억 달러(약 6.4조 원)에서 2031년 103억 달러(약 14.0조 원)까지 확대되며 연평균 성장률 17.0%로 전망
 - EU “Fit for 55” 규제 대응과 주요 완성차 기업의 전기트럭 생산 확대가 독일 전기상용차 시장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

- 충전 인프라 부족과 보조금 정책 변화가 시장 성장의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반으로 전기상용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

- 총소유비용(TCO)*의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중대형 전기트럭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며 전기 상용차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 가속

* TCO(Total Cost of Ownership): 구매·운영·유지관리 등 차량 보유 기간 전체에 발생하는 총비용

- 중대형 트럭 충전 수요가 연평균 31.1% 성장하며, 기존 승용차 중심이던 충전 인프라도 화물·물류 운송 부문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

□ 독일 연방교통부는 전기 화물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10억 유로(약 1.36조 원)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화물·물류 부문의 전기트럭 전환 기반 확대

- 1차 지원 사업에서 전체 예산의 20%에 해당하는 2억 유로(약 2,720억 원)를 우선 투입하며 기업·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

- 기업 전용 충전소는 최소 50kW, 공공 개방형 충전소는 최소 1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설치 용량 1kW당 500유로(약 68만 원) 지원
- 1차 공모는 2026년 5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경쟁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예정

- 라인-알프스와 북해-발트해 등 유럽 주요 물류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

- TEN-T* 주요 물류 노선에 메가와트충전시스템**(MCS) 거점을 우선 구축하여 대형 전기트럭의 장거리 이동 기반 강화

* TEN-T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): 유럽 회원국을 연결하는 통합 교통망

** MCS(Megawatt Charging System): 대형 전기트럭용 초고출력 충전 시스템

-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화물·물류 중심의 전기트럭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거리 화물 운송용 충전 체계 구축을 추진

※ 출처 : CHARGED EV FLEET & INFRASTRUCTURE NEWS(2026.05.13.), Germany to invest one billion euros in electric truck charging infrastructure